

곡성 멜론·잎들깨·토란·한우

‘돈 되는 농산물’로 키운다



멜론



갯잎



토란



한우

곡성군이 멜론·잎들깨·토란·한우를 명품브랜드 농산물로 육성한다.

군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업농 시대의 돈버는 농업을 위해 지역특성에 알맞은 4작목을 선정, 집중 지원으로 명품브랜드 농산물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배경은 기존의 소량 다 품목 생산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하고 명품 농산물이 아니면 상업농 시대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 대표작목으로 선정된 멜론·잎들깨·토란은 명품브랜드 작목으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군 특화작목인 멜론은 재배규모 156ha로서 점유율이 전국의 9%, 전남의 25% 수준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멜론 클러스터사업을 계기로 ▲유통시설 현대화 ▲백화점 입점에 의한 브랜드 가치 상승 ▲멜론 가공제품 개발 ▲해외수출 등 전국 최상위권 위상을 정립했다. 올해에는 멜론 연중 생산을 위한 겨울재배 시설과 으뜸과채생산 사업을 중점 추진해 명품 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목사동면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잎들깨는 그동안 추진된 ‘1읍·면 특화사업’과 시설업체유무가운 패키지 사업 등으로 생산기반이 탄탄하고 10a(300평)당 소

득이 1000만원 이상으로 시설채소 중 가장 높다.

앞으로 ▲면적확대 ▲연작장애 방지 ▲친환경 재배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이 가능한 시설하우스 2동까지 보조율을 높여 지원한다. 잎들깨 2동에서는 연간 1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하다.

전국 재배규모의 20%를 차지하는 토란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유리하며 가공제품을 개발하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다.

토란은 논 소득작목 다양화사업과 연계해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하고 ▲연작장애 방지 ▲친환경 재배 ▲포장재 개발 보급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규격화된 포장재가 개발되면 그동안 주로 중간상인에 의한 포전매(발매기 거래)나 경동시장으로 출하했으나 앞으로는 경매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재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960 농가에서 1만 4000여 마리를 사육, ‘지리산 순한우’ 브랜드로 출하하는 한우 역시 축사지붕 자동 개폐시설 등 시설 현대화와 함께 자연순환형 조사를 생산기반 확충과 사양관리 현대화 등을 추진, 축산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 ‘아랫장’ 옛 명성 되찾는다

市, 주차장·노후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순천시 전통시장인 ‘아랫장’이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

그동안 아랫장은 주차장과 비거림막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을 시장안에

설치하고 이용자 동선을 따라 비거림막 시설을 설치해 비나 햇빛으로부터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and 상인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아랫장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전통시장으로 조성되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천 옷장 상인들의 이

야기를 담은 ‘순천옷장 스토리북 정류장’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류장은 ‘정이 흐르는 시장’의 줄임말이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고 있는 문헌성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행됐다.

스토리북은 지역의 젊은 사진작가들과 시장 상인작가, 문헌성서 PM단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옷장의 100년 된 역사와 상인들의 애환이 담긴 42개 점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편 순천시 아랫장은 풍력동 동천변에서 열리는 5일장(2·7일)이며, 옷장은 동의동에서 열리는 5일장(5·10일)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관광 광양’ 정보 한눈에

市 ‘이야기 보따리 광양여행’ 책 발간

광양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관광여행 책자가 발간됐다.

광양시는 최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인물 등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사실과 픽션으로 표현한 ‘이야기 보따리 광양여행’ 책자를 펴냈다. 이번 광양여행 책자는 “조선지(朝鮮志) 전라도(全羅道)요, 전라도지(全羅道之) 광양(光陽)”이라

는 어사 박문수의 광양예찬을 프롤로그로 ▲큰 부자의 비밀이 숨어있는 백운산계곡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연수내 가족여행 ▲섬진강에서 시간여행을 떠나다 등 3부로 나눠 구성됐다.

또한 관광명소, 음식·숙박정보, 관광코스 등 다양한 여행정보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시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와 여행사·기관·단체·학교, 이통장 등에게



배부해 ‘광양 관광’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광양여행 책자가 지역민은 물론이고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정보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서천변에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조성물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조형물이 최근 광양을 서천변 입구에 세워졌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해에 음식문화개선 도 공모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광양을 서천변 일대 음식점 44개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를 조성해 왔다.

시는 도비 등을 지원받아 위생환경 등 업소 위생용품 8종을 제작 지원했으며, 광양불고기의 유래와 우수성을 외지인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

관벨(160개)을 제작해 불고기 취급업소에 배부하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야간에는 어두웠던 서천변 주변이 특화거리 조형물의 멋진 조명으로 인해 밝고 분위기가 있게 변모했다”며 “연차별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 중마동 지역을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동부권 설연휴 여객선 이용 5만 3935명... 지난해와 비슷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전남 동부 지역 섬을 찾은 귀성객 등 여객선과 도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섬 귀성객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한 지난 1~6일 사이 여객선과 도선을 타고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 섬을 찾은 이용객 수는 모두 5만3935명(여객선 3만398명·도선 2만3537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여객선 이용객이 21.9%가량 늘어난 반면 도선 이용객은 17%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3289명(여객선 2만4921명·도선 2만8368명)이 다녔던 것에 비해 수치상 1.2%가량 소폭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날 당일 이용객이 1만1731명으로 특별수송기간 중 가장 많았으나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하고 연휴가 길었던 까닭에 이용객 분산 효과를 가져와 사전과 등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 북

순창에 ‘산림 테라피밸리’

2013년까지 용골산 일대 200ha 60억 투입

순창군이 숲 속에서 휴양과 치유,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나선다.

순창군은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동계면 어치리 용골산(645m) 일원 200ha의 산림에 60억원을 투입해 ‘산림 테라피(therapy)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단계는 장구목 휴양지와 섬진강 생태관광지가 주변에 연계돼 있어 산림휴양과 치유를 위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서 최상의 적지로 손꼽힌다.

군은 수려한 산림자원과 계곡을 활용해 건강, 장수고을 이미지에 적합한 ▲숲 치료 ▲숲 휴양 ▲산림문화 ▲레저 등 테마가 있는 체류형 산림 테라피밸리를 조성해 급증하는 산림문화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섬진강 수자원과 우수하게 보존된 용골산의 산림 기능을 활용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건강을 재충전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체류형 복합휴양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힐링센터와 장수(長壽) 체험촌이 있는 테마시설을 비롯해 ▲산림치유길, 명상의 숲, 소리치유 숲, 지압길 등이 있는 ‘치유의 숲’ ▲장수 음식과 오색



(五)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수음식 체험관’ ▲짚라인, 레인댄스, 슬링샷, 루지 등이 있는 ‘모험시설’ 등과 함께 어린이의 모험심을 키우기 위한 친환경 놀이터인 ‘모험 놀이동산’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숲과 산림이 가져다주는 치유효과를 활용해 건강과 자연치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배 산촌소득담당은 “우수하게 보존된 산림자원을 산촌관광을 통한 자연학습의 장과 건강장수 고을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 테라피밸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 버스파업 ‘특위’ 구성

시의회, 버스운영 전반 3개월간 조사

지난해 12월 초부터 전주 시내·외 버스파업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특위를 구성,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에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박현규 위원 등 위원 13명 발의로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장태형)를 꾸렸다.

특위는 11명의 의원이 참여해 7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민불편 해결을 위한 의회차원 대책 강구를 위해 업체 측에 지원되는 보전금·보조금의 실태와 관련기관 지도감독,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는 ▲전주시의 버스업무 추진 상황 ▲보조금 지원 ▲운수업체 지도 감독 여부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 ▲정산관련 ▲보조금액수의 타당성 ▲업체 측의 운영실태 전반, ▲버스파업 관련 전반 ▲다른 지역 버스 경영제·준공영제 사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의회는 “5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의회와 많은 시민단체가 버스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특위 구성이 불가피했다”고 당위성을 설명

했다. 이어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주시는 파업해결 때까지 운행버스 전체를 공동 관리할 것과 정상운영(382대)의 90%에 준하는 운행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버스 90대를 증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앞으로는 모든 힘을 동원해 노·사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대체버스에 대해 시내버스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에서 운행버스 전체를 공동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하늘에서 본 새만금 방조제

하늘에서 바라본 새만금방조제 일대. 새만금사업단은 이번 설 연휴(2~6일)에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조제를 찾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연합뉴스

단 신

전북인력개발원 교육생 360명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2011학년도 남년교육생(360명)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컴퓨터 응용 금형설계 ▲컴퓨터 응용 설계제작 ▲공유압 제어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제어 ▲전기시스템 제어

등 5개 학과로 사출금형·프레스 금형·시스템제어·특수용접 등 12개 직종으로 각 직종별 30명이다.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기간은 3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다. 문의(063-472-2500) /전북취재본부=박승식기자 nogusu@

정읍 정보화마을 설 특산물 인기

정읍지역 3개 정보화마을(내장마을, 옥정호 청정마을, 대정유기농축산물마을)이 설맞이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4500만원)보다 78% 증가한 8000여 만원의 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렸다.

정읍지역 정보화마을의 연도별 매출액은 ▲2008년 1억원, ▲

2009년 1억9000만원 ▲2010년 2억20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전자상거래 판매 목표를 36% 증가한 3억원으로 설정, 판매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남원시는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0년도에 토

지 31만9383필지와 건축물 4만9544건의 오류 자료 추출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데 이어 올해 토지와 등기는 32%, 토지와 건축, 건축과 등기간의 오류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시립도서관 문화 강좌 수강생 모집

김제 시립도서관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문화교실 시민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시민강좌는 상·하반기(4개월) 과정과 여름 방학반(4주) 과정 등 5개반·15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상·하반기 과정은 행복심리

학·서예·한국화(사군자·문인화)·POP글씨·풍수지리·대체의학 등이 개설되며, 여름방학반에는 어린이 신문활용교육(NIE)·어린이 POP글씨·북아트·역사논술·팝송영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063-540-4126)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